

2015 / 06 / 15 (MON)

IT (소프트웨어/인터넷/IT서비스) 이경일 6099-8505 shinjohyub@barofn.com

국내 IT 업종 Comment

전일 국내 IT 섹터는 강보합세. 美 소비지표 호조로 대형 IT주 위주로 반등세 나타났지만 그리스 우려 지속되며 상승폭 제한. 부품주들이 상대적으로 약세.

수급측면에서는 외인의 매수세로 에스에프에이, NAVER, SK C&C 강세. 반면 기관의 매도세로 게임빌, 삼성전기, 다음카카오, 이오테크닉스, LG디스플레이 약세.

종목별로는 주가 반등 모멘텀 부족이 부족하다는 분석에 LG전자가 2.3% 하락 마감.

국내 IT Sector

Index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KRX IT	1,401.13	0.7%	-6.1%	767 억	-759 억
KRX Semicon	1,949.62	-0.3%	3.9%	248 억	-167 억
(코) 반도체	1,000.06	-0.5%	25.4%	2 억	88 억
(코) IT H/W	408.97	-1.1%	17.3%	19 억	48 억
(코) IT S/W	2,210.87	-1.8%	10.6%	-110 억	-50 억

하드웨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전자	1,277,000	1.6%	-3.8%	433 억	-142 억
LG전자	51,900	-2.3%	-12.2%	-104 억	13 억
삼성SDI	113,500	0.0%	-2.2%	-14 억	-7 억
삼성테크윈	34,150	1.0%	43.2%	8 억	41 억
서울반도체	15,600	-2.8%	-22.8%	4 억	-3 억
신도리코	67,400	2.0%	-0.6%	1 억	1 억

반도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SK하이닉스	46,550	-1.2%	-2.5%	-171 억	-56 억
이오테크닉스	102,100	-2.8%	-18.5%	15 억	-11 억
월익IPS	14,500	2.5%	3.9%	11 억	10 억
리노공업	48,850	0.5%	27.5%	-6 억	10 억
유진테크	17,950	1.7%	11.1%	-1 억	4 억

IT서비스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에스디에스	269,500	0.4%	-8.2%	-71 억	59 억
SK C&C	266,500	4.7%	24.8%	137 억	-125 억
포스코 ICT	5,060	0.8%	-4.5%	1 억	1 억
다우기술	16,650	-0.9%	39.3%	7 억	-3 억

인터넷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NAVER	601,000	6.2%	-15.6%	666 억	-313 억
다음카카오	110,800	-3.2%	-10.4%	-102 억	-67 억

디스플레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LG디스플레이	26,750	-2.7%	-20.5%	19 억	-134 억
에스에프에이	48,800	7.3%	-1.7%	11 억	23 억
솔브레인	48,450	-2.1%	50.7%	-9 억	6 억
덕산하이메탈	8,680	-5.1%	-22.2%	-4 억	-2 억

전자부품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전기	55,500	-4.1%	1.5%	-102 억	-63 억
LG이노텍	103,500	0.5%	-8.0%	-66 억	94 억
파트론	8,670	-4.5%	-26.2%	8 억	-6 억
루멘스	4,695	-2.6%	-33.4%	-4 억	0 억
일진디스플레이	9,270	-4.0%	35.9%	-15 억	-1 억

게임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엔씨소프트	190,500	2.4%	4.7%	51 억	2 억
컴투스	126,600	-2.1%	-4.6%	-3 억	-25 억
NHN엔터테인먼트	57,000	-0.2%	-34.9%	-13 억	-4 억
게임빌	90,800	-6.9%	-24.8%	-5 억	-26 억
위메이드	40,250	-1.8%	6.5%	-1 억	2 억
선데이토즈	17,700	0.0%	2.9%	1 억	-2 억

소프트웨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골프존	145,200	-4.5%	475.0%	-5 억	4 억
한글과컴퓨터	18,400	-0.3%	-8.9%	2 억	3 억
코나아이	32,550	-0.6%	-3.4%	-3 억	2 억
슈프리카	20,350	-1.0%	-20.0%	-1 억	-

해외 IT Sector

Index	close	1D	YTD
MSCI IT	152.66	-0.4%	3.9%
MSCI Internet	160.11	-0.1%	4.8%
MSCI Software	170.78	-0.4%	4.4%
MSCI Semicon	219.72	-0.5%	-0.2%
MSCI IT Services	124.52	-0.8%	5.7%

Internet

close	1D	YTD	
Google	547.47	-0.5%	3.2%
Facebook	81.53	-0.4%	4.5%
Tencent	157.20	1.9%	39.7%
Baidu	207.60	0.4%	-8.9%
Yahoo	40.52	-1.0%	-19.8%

Software

close	1D	YTD	
Microsoft	45.97	-1.0%	-1.0%
Oracle	44.34	0.1%	-1.4%
SAP	73.55	-0.9%	5.6%
EMC	27.07	-0.8%	-9.0%
Symantec	23.75	-0.2%	-7.4%

Handset

close	1D	YTD	
Apple	127.17	-1.1%	15.2%
Nokia	7.13	-1.2%	-9.3%
Lenovo	11.42	2.1%	12.0%
ZTE	22.25	0.2%	32.1%
HTC	76.0	0.7%	-46.5%

Semicon

close	1D	YTD	
Intel	31.32	-1.7%	-13.7%
Qualcomm	67.03	-0.8%	-9.8%
Texas Instruments	53.01	-1.2%	-0.9%
Micron	25.13	0.4%	-28.2%
Toshiba	438	-0.9%	-14.6%
Renesas	938	0.0%	14.0%
STMicro	8.23	-2.1%	10.2%

IT Services

close	1D	YTD	
IBM	166.99	-1.1%	4.1%
HP	32.41	-0.3%	-19.2%
Accenture	96.10	-0.8%	7.6%
Fujitsu	730	2.5%	13.3%
NTT Data	5,460	0.4%	20.9%
CSC	67.75	-2.3%	7.5%

Hardware

close	1D	YTD	
GE	27.39	-0.4%	8.4%
Panasonic	1,772	0.7%	24.2%
SONY	3,787	0.7%	53.1%
Whirlpool	185.99	-0.4%	-4.0%
Electrolux	261.70	0.0%	14.4%
Haier	21.95	-0.5%	18.9%

Components

close	1D	YTD	
Murata	19,915	3.2%	50.3%
KYOCERA	6,584	1.0%	18.5%
Nidec	9,106	2.4%	16.0%
TDK	10,160	2.4%	41.9%
Ibiden	2,199	1.7%	23.0%

Display

close	1D	YTD	
Sharp	170	-1.2%	-36.6%
Japan Display	546	-1.3%	47.6%
AUO	4.63	-2.1%	-9.0%
Innolux	16.10	0.3%	4.5%

외국인 매매동향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NAVER	666 억	SK하이닉스	-171 억
삼성전자	433 억	LG전자	-104 억
SK C&C	137 억	다음카카오	-102 억
엔씨소프트	51 억	삼성전기	-102 억
아프리카TV	28 억	삼성에스디에	-71 억
LG디스플레이	19 억	LG이노텍	-66 억
이오테크닉스	15 억	웹젠	-20 억
엠씨넥스	12 억	일진디스플레이	-15 억
안랩	11 억	삼성SDI	-14 억
월익IPS	11 억	NHN엔터	-13 억
에스에프에이	11 억	LS	-10 억
STS반도체	10 억	솔브레인	-9 억

기관 매매동향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LG이노텍	94 억	NAVER	-313 억
삼성에스디에	59 억	삼성전자	-142 억
삼성테크윈	41 억	LG디스플레이	-134 억
아프리카TV	29 억	SK C&C	-125 억
에스에프에이	23 억	다음카카오	-67 억
엠케이전자	18 억	삼성전기	-63 억
웹젠	17 억	SK하이닉스	-56 억
LG전자	13 억	게임빌	-26 억
월익메트리얼	11 억	컴투스	-25 억
테라세미콘	11 억	이녹스	-22 억
실리콘웍스	11 억	LS	-13 억
월익IPS	10 억	이오테크닉스	-11 억

반도체 / LCD 패널 가격

Product	close	1D	YTD
DXI (Index)	6988.90	-0.2%	-7.9%
DDR3 2Gb (Spot)	1.64 \$	-1.2%	-25.8%
NAND 64Gb (Spot)	2.64 \$	0.0%	9.1%

Product	Price	2W	YTD
DDR3 4Gb (Contract)	2.75 \$	-4.5%	-23.4%
NAND 64Gb (Contract)	2.61 \$	0.0%	-5.4%
LCD TV 32" Open Cell	86 \$	-1.1%	-8.5%
LCD TV 50" Open Cell	200 \$	-0.5%	-0.5%

인터넷 Internet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NAVER	6.2%	최근이슈

News & Issue

NAVER, 2분기 실적개선 전망

NAVER의 2분기 실적은 매출액 7,729억원(YoY 12.7%, QoQ 4.4%), 영업이익 2,209억원(YoY 16.8%, QoQ 15.1%)으로 영업이익은 지난 5개 분기 동안의 정체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줄 전망이다.

또한 2분기 인건비는 최근 2월 지급한 스톡옵션 비용의 온도 반영으로 전분기 대비 약 1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광고선전비는 1분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한편 부진했던 동사 주가는 대부분 실적 부진 및 라인 성장 둔화 우려에 기인. 이에 2분기 영업이익 개선세는 주가 반등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하반기 라인 상장 이슈 부각에 따라 주가 반등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드웨어 Hardware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LG전자	-2.3%	최근이슈

News & Issue

LG전자, 주가 반등 모멘텀 부족

LG전자의 주가는 2011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다고 평가됨. 올해 2분기와 하반기 실적 추정치도 하향 조정되고 있음. 현재 주가에 LG전자의 약재(2분기 이익 하향, 플래그십 모델 G4의 업사이드 한계)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주가 반등 모멘텀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됨.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3.9조원, 3,008억원으로 예상됨. 매출 컨센서스는 큰 변동 없으나 영업이익 전망치는 하향조정 되고 있음. 영업이익 하향 조정의 이유로는 당초 기대와 다른 TV 사업의 적자 지속과 핸드폰 사업의 마진 하락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해석됨.

국내 기관의 낮아질 대로 낮아진 기대치와 수급이 기술적 반등의 요건은 될 수 있지만, 높아진 외국인 비중의 잠재적 매도 수급은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판단됨. 외국인은 2014년초 15%의 보유 비중을 보이다가 이달에는 22%까지 보유 비중을 늘린 상황.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Industry		최근이슈

News & Issue

NFC 결제서비스 확대, 선불카드-VAN업계, 단말기 표준화논의 확산

애플과 구글이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반의 결제 서비스를 연이어 선보인 가운데 국내에서도 NFC 결제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NFC 결제를 내세운 안드로이드 페이와 애플 페이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앞두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소매점을 중심으로 NFC 결제 서비스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는 분위기다.

여기에 1000억원의 기금이 투입되는 여신금융협회의 영세가맹점 IC결제 단말기 전환 사업에 NFC 결제 탑재 가능성을 남겨둬으로서 NFC 결제 단말 보급에 희망의 불씨를 남긴 상태다. 다만 NFC 결제 단말에 대한 표준에 대한 논의는 부재한 상황이다. 대형 소매점 및 가맹사업자들이 서비스 편의성 확보 차원에서 NFC 결제 단말의 별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표준 부재는 향후 여러 가지 문제를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최근 부가가치사업자(VAN)와 선불카드 사업자가 모여 NFC유통 결제 단말기 표준 제정에 착수했다. 한국스마트카드와 이비카드, 마이비, 부산하나로카드 등 주요 선불카드사와 VAN사를 주축으로 NFC 유통결제 단말기 관련 협의체가 구성된 것. NFC 유통결제 단말기 관련 협의체 관계자는 "현재 매주 실무자 미팅을 진행하고 있다. 올 하반기 안에는 표준가이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불카드사와 VAN사가 주축이 돼 유통결제 단말기 표준을 준비하는 이유는 핀테크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그동안 제한된 영역에서 결제 업무를 수행하던 이들 업체들이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선불카드 업계의 경우 핀테크 시장에 어떻게 참여할 지를 두고 고민이 많은 상황이다. 교통카드 사업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을 상대로 소액 결제 부분까지 사업을 확대해 온 이들 업체들에게 최근 핀테크 열풍은 기회인 동시에 위기이기도 하다. 새로운 결제 플레이어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기존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미 전국에 깔려 있는 결제 인프라를 활용하면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기도 하다.

단순히 결제기능에 멈춰져 있던 서비스를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협의체 관계자는 "NFC 결제 인프라를 활용한 단순 결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O2O(Online to Offline) 사업으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선불교통카드 및 모바일 신용카드(BC, 하나) 외에 다양한 형태의 NFC 결제수단이 신규로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VAN사가 운영 중인 NFC 단말기에 신규 결제수단이 지속 추가될 경우 개별 규격적용으로 인한, NFC 단말기 기능 강화가 필요하고 신규 결제수단 적용에 따른 오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방지하고자 업계에선 VAN사 및 카드발행사의 경험이 집약된 거래표준 가이드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협의체에서는 NFC 단말기 거래표준 가이드 제정 및 사후적용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제정된 거래표준 가이드를 국가표준으로 반영하기 위한 다각적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업계에선 NFC 단말기 거래표준(ISO, 거래표준가이드)을 국가 규격으로 확정, 단말기에 해당기능을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협의체 관계자는 "거래표준이 확정돼 반영되면 최소화된 시스템변경을 통해 시장 진입이 가능하며, 현장 가맹점 운영 시 예러가 최소화되어, NFC 결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IT서비스 IT Services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SK C&C	4.7%	최근이슈

News & Issue

SK C&C, 합병 후 실적개선 전망에 강세

SK C&C의 합병 후 올해 EPS는 주당 21,000원, 내년 25,000원으로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되며 주가도 강세. 자회간의 합병이나 자회사 분할 등의 이슈는 더 이상 없을 것임을 SK그룹은 대표이사 간담회에서 분명히 밝힌 바 있어 SK E&S가 SKC&C의 100% 자회사가 되어 LNG밸류체인 중심을 영위할 예정.

보령터미널과 호주가스전개발로 SKE&S는 LNG의 모든 밸류체인을 가지게 되어 가치 중대가 예상된다. 한편 신성장축인 LNG밸류체인, 바이오, 클라우드 및 4PL 물류, 반도체 소재 부문은 실적 합병 SK C&C의 실적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디스플레이 Display

Region	종목	1D	Category
글로벌	Industry		최근이슈

News & Issue

중화권 업계 4K 스마트폰 패널 공개, 4K 폰 시대는 언제

대만과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4K 해상도를 지원하는 4~6인치 화면 크기의 스마트폰용 패널을 선보였다. 12월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만 AUO, 중국 BOE와 티안마는 이달 초 미국 산호세에서 열린 2015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회(society for information display, SID) 전시회에서 스마트폰용 4K 해상도의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시제품을 전시했다.

AUO는 6인치, BOE는 4.7인치, 티안마는 5.2인치 화면 크기를 갖고 있었다. 양산 발표가 아닌 단순 '전시'이긴 하나 한국과 일본 기업보다 빨리 4K 해상도의 스마트폰 패널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중화권 업체들의 기술력 추격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 같은 패널 업체들의 제품 공개가 4K 해상도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의 출시를 부추길지는 미지수다. 원가 상승 등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LCD는 해상도가 높아지면 배선이 복잡해져 개구율(실제 빛이 나올 수 있는 면적 비율)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

낮아진 개구율을 보상하려면 빛이 강한 발광다이오드(LED)를 백라이트에 탑재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소비전력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현재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디스플레이 패널의 해상도는 QHD(2560×1440)다.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은 풀HD(1920×1080)에서 QHD로 넘어올 때도 디스플레이 패널의 높아진 소비전력을 잡기 위해 상당히 애를 먹었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내년 프리미엄 신제품에 4K 해상도 패널을 채용할지, 채용하지 않을지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딱 잘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해상도보단 옛지 플렉시블 패널을 활용한 '폼팩터'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터넷 Internet

Region	종목	1D	Category
해외	Tencent	1.9%	최근이슈

News & Issue

중 텐센트 게임들, 넷마블 타고 韓시장 속속 입성

한국서 배운 노하우로 중국 모바일 게임 시장을 평정한 텐센트가 이번에는 넷마블게임즈와 손잡고 자사 히트작들을 한국 시장에 선보임. 새롭게 선보이는 게임들이 중국 시장에서는 이미 인기가 검증된 것들이라 한국 시장에서의 성공 여부를 두고 벌써부터 이목이 집중. 넷마블게임즈는 올해초 텐센트와 중국 매출 1위를 달성했던 모바일 MORPG '천천현투(天天炫斗, 국내명 시티앤파이터 포카카오)'의 국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최근에는 FPS 장르로 흥행에 성공한 '전민돌격(全民突击)'에 대해서도 막바지 협상을 진행중.

천천현투는 '던전앤파이터'와 유사한 횡스크롤 액션 게임으로 아직 국내서는 같은 장르의 모바일 히트작이 없다는 점에서 성공 여부가 주목되고 전민돌격 역시 국내서는 무주공산에 가까운 모바일 FPS 게임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지 관심 집중. 넷마블게임즈 백영훈 사업총괄 부사장은 "텐센트가 만든 게임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국내에 들여오지는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매주 진행되는 소싱 검토 회의를 통해 텐센트 게임을 포함한 여러 게임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

텐센트는 지난 2012년 넷마블게임즈에 5,300억원 규모를 투자하며 3대 주주의 자리를 지키고 있음. 텐센트는 2000년대 초반 '던전앤파이터', '크로스파이어'와 같은 한국 온라인 게임을 중국에 서비스하며 급성장. 최근에는 모바일 메신저 위챗과 쿠크(QQ) 메신저를 활용해 '텐센트 모바일 게임 플랫폼'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중국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도 전방위적인 영향력을 행사. 올해 1분기 텐센트가 벌어들인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21.7% 증가한 36.1억달러(약 4조원).

텐센트가 거둔 이러한 성과는 한국 게임산업에서 배운 노하우를 토대로 했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 텐센트의 모바일 게임 플랫폼은 다음카카오의 '카카오게임하기' 플랫폼을 답습한 모델. 텐센트는 카카오 게임하기가 론칭되기 전인 2012년 4월 720억 원 규모를 카카오에 투자하는 '선구안'을 보이기도 함.

한국에서 게임을 배운 텐센트가 역으로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서면서 게임업계는 이 회사의 개발력이 국내서도 통할 것인가에 주목. 게임업계 관계자는 "중국 최대 게임사 텐센트와 한국 모바일 게임 시장을 평정한 넷마블게임즈가 일으키는 시너지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부터 가시화될 텐센트 모바일 게임의 성과에 게임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언급.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6월 15일 현재 지난 3개월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당사는 6월 15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6월 15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